

ARTISTS

# article

a journal of contemporary art  
november 2013 issue #28  
contains 20% art portrait; 25% art passage; 30% feature

## REAL ARTIST RESIDENCY

101 Postscripts

RESIDENCY

시각예술저널 경향 (아티클)

10,000원

11



9 772234 177001

ISSN 2234-1773



칼리토 카르발료사. Sala de espera(waiting room). 2013  
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. 자료제공 국제갤러리

## 시적 감성을 자극하는 ‘살라 드 에스페라’

권인수 객원기자

**칼리토 카르발료사 전**  
**국제갤러리 / 10. 12-11. 12**

중력을 거스른 것 같은 짜임으로 갤러리를 가로지르는 나무 기둥들이 인상적인 브라질 출신의 설치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(Carlito Carvalhosa)의 국내 첫 개인전이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.

전시의 오브제인 나무 기둥은 자연의 일부인 나무에서 그 생명을 제거당하고 거리의 전신주로 역할 하다, 그 본질에서 벗어나 갤러리라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. 지나치게 거대한 기둥들이 실내를 채우는 것도 이질적인데, 이에 더해 작가는 기둥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수직성이라는 속성마저 파괴한 채 공간 안에 배열했다. 일관성이나 연속성 없이 놓인 기둥들 중 일부는 한쪽만 공간에 고정되어 있어 8-12m의 육중한 몸체가 더욱 위태롭게 느껴진다. 설치를 위해 벽에 뚫었을 구멍들은 나무 기둥들을 그곳에 놓아두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했다는 느낌보다는 나무 기둥이 벽을 뚫고 이 공간에 제멋대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자극한다. 이와 같은 무질서가 주는 리듬감은 나무 기둥에게서 제거당한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장치로서 역할 한다. 또한 작품의 제목 ‘살라 드 에스페라(Sala de Espera)’는 ‘대기실’이라는 의미인데, 새로운 곳을 향해 또는 새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머무르게 되는 ‘대기실’을 채운 대상이 이미 두 번이나 그 소용을 다한 나무 기둥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발상을 제공한다.

작지 않은 공간의 끝에서 끝을 가로지르는 나무 기둥들은 공간을 분할할 뿐만 아니라 시선의 흐름을 유도하며,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의 물리적인 크기와 깊이, 동시에 나무 기둥이 거쳐 온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생각하게 하며 시적 세계로 이끌고 있다.